

견고하게 세우라!

고린도전서 3:10-17

로맨틱한 관계에 있거나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상대방이 자신의 본질을 알아주기를 원할 것입니다 – 자신의 기본적인 가치관, 강점, 인생 경험 등을요. 당신이 어머니에게 화를 냈던 순간이나 평소와 다르게 행동한 때처럼 본질과 관계없는 일들에 주위가 산만해지길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선거 기간 동안 정당을 분석할 때는 그 정당의 기본 원칙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와 미국 정치에서 비평가들은 상대 정당의 극단적인 부분을 공격하며, 그로 인해 전체 정당을 극단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종교 신앙을 연구할 때도 그 기초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슬람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코란과 예언자 모하메드의 삶을 연구해야 합니다. ISIS나 하마스와 같은 극단적인 움직임을 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 생각할 때, 그 기초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 (1) 유일한 기초
- (2) 신중히 건설하기
- (3) 건물을 소중히 여기기

첫 번째, 기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은 말합니다: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구절을 외워두세요. 집의 벽에 붙이세요. 마음의 벽에 새기세요.

당신에게, 가정에게, 교회에게 예수 외에 다른 기초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십니다!

첫 번째, 유일한 기초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물 중에서 오직 남자와 여자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지만, 스스로 신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자기 우상 숭배가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켰습니다.

우리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구약 전체에서 계속해서 약속된 예수님은 우리 중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의 삶과 구원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셨지만, 자기 백성에게 거절당하셨습니다. 유대와 로마 지도자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패배처럼 보였던 것은 사실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써, 인류 최초부터 역사 끝까지 저지른 모든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고, 그로 인해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죄, 죽음, 그리고 악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분과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치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가족을 받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힘을 가지고, 죽음을 이기며, 악한 자에 대한 권세를 얻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와 기름부음을 받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그의 구원의 사역이 바로 기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장 2절)!

우리 세대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역사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며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옵니다. 그분이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의 삶, 가정, 교회에 이 확고한 기초가 없다면, 남는 것은 분열과 불안뿐입니다. 유일하고 확실한 기초에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보면, 이는 암 치료, 이민, 자녀의 어려움 등 삶의 모든 도전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을 기초로 삼고 살기로 결정하면, 그분이 나머지 모든 결정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은 천 가지 다른 결정을 만드는 하나의 결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면, 그 외의 모든 것이 주변적인 것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 교회를 위한 기초를 놓도록 부름을 받았을 때, 그 기초가 예수님임을 확고히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은 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니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바울은 뛰어난 건축가였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용어는 실제로 고대 신전 비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도급 작업의 일상적인 업무를 감독하는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숙련된 기술자를 고용하고 작업이 엉망으로 되지 않도록 책임졌습니다. 그는 작업이 기준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했습니다!

현재의 예로 오스틴 하이츠의 숙련된 건축자인 필 발저(필의 사진과 건축 전후 사진)가 있습니다. 필은 하도급업체를 고용하고, 작업이 규정에 맞게 시기적절하게 완료되도록 합니다. 필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오스틴 하이츠의 기초가 될 수는 없습니다 – 오직 예수님만이 기초입니다.

바울은 “각각 조심하라”라고 씁니다(10절). 바울은 독자들에게 기초 위에 신중하게 건설할 것을 촉구합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계속해서 “세우고” 바닥, 벽, 지붕을 추가하길 기대합니다.

바울이 언급하는 건축자들은 누구일까요? 이 구절들에서 건축하는 사람들은 익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 3:10; “각자,” 3:10, 13(2회); “아무도,” 11절; “누구든지,” 12, 14, 15, 17절. 바울은 건축 과정에 기여하는 모든 고린도 교인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는 전도자, 목자, 교사, 선지자들을 포함하지만, 에베소서 4장 11-12절은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교회 가족을 세우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주어졌다고 가르칩니다. 각 구성원은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기초 위에 어떻게 세워가고 있는지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윌링던의 가족 사역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건축하는지 신중해야 합니다. 역사상 전 세계적으로, 가족의 이상적인 모습은 남성과 여성이 결혼하여 함께하고, 두 사람이 자녀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건강한 사회에서는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증손자와 같이 세대 간의 연결이 존재했습니다.

기독교 신앙 내에서 우리는 이러한 가족 이해를 뒷받침하는 성경적 기초를 받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결혼할 때 하나의 육체가 되어 하나님의 영으로 결합됩니다. 부부와 그들의 자녀의 기초는 예수님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는 기초(예수님)에 의지해 나머지 집(자녀들)을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가족을 지탱하는 기둥이 될 수 없으며, 더욱이 기초가 될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 캐나다 사회에서는 함께 사는 사람들의 수나 성적 지향에 상관없이 모든 구성은 가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우 최근의 이러한 관점에서 기초는 생물학, 사회학, 역사도 아니며, 더욱이 하나님도 아닙니다. 이는 잘못된 전제에 기초한 성별 이데올로기라는 허약한 기초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 가족의 정의에 이르기 위해, 성별이 성에서 분리되고 새로운 정의가 주어졌습니다. 성별 이데올로기를 따르면 이상적인 가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상의 산물인 무언가를 창조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가족을 꾸리는 한 방식이 미래 세대를 위한 기초를 마련할 것이고 다른 방식은 그렇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성별 이데올로기의 방식은 우리의 세대와 다음 세대의 종말로 이어질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결혼하여 함께하지 않으면 자녀가 없게 되며, 이것이 오늘날 캐나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모든 것을 일반화함으로써, 우리 사회는 기초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건설할지 신중해야 합니다. 성별 이데올로기에 반대하는 것은 우리가 편협하거나 고루한 가부장적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음 세대에 헌신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족을 설계하셨지,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에서 그들이 복음의 소망을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했던 것처럼, 오늘날 캐나다에서 우리도 그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에 부합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기초로 삼고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십시오. 세상에 저항하려면 남성과 여성으로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것에 만족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근본으로 돌아가는 급진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족을 세우는 계약을 내시고, 숙련된 건축자를 고용하시며, 올바른 기초와 건축 자재로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보장하시는 분이십니다.

12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13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여섯 가지 건축 자재 예시는 가치의 하향 순위를 보여줍니다: 금, 은, 보석(화강암과 대리석처럼), 나무, 풀, 짚. 첫 세 가지는 불에 타지 않는 것(씩지 않는 것)이고, 마지막 세 가지는 불에 잘 타는 것(씩는 것)입니다.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은 솔로몬 성전의 건축이 배경에 있으며, 어쩌면 고린도의 장엄한 성전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원전 6세기에 세워진 아폴로 신전의 유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건축 자재의 질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재료는 견딜 것이고, 다른 것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영국 어린이 문학에는 “아기 돼지 삼형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사람들이 제 생일을 알게 되었을 때 저를 돼지띠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이야기와 공감할 수 있습니다.

늙은 어미 돼지는 아기 돼지 세 마리에게 먹일 음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아기 돼지들을 세상에 내보냈습니다. 첫째 돼지는 매우 게을러서 집을 짚으로 지었습니다. 둘째 돼지도 게을러서 나무 막대기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돼지와 함께 온종일 노래하고 춤을 쳤습니다. 셋째 돼지는 온종일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는 굴뚝까지 포함된 벽돌집을 지었고, 그 집은 튼튼했습니다! 다음 날, 늙대가 산책하다가 짚으로 지은 집을 보았습니다. 안에 있는 아기 돼지 냄새를 맡은 늙대는 문을 두드리며 애원했습니다, “아기 돼지야! 아기 돼지야! 문을 열어줘! 문을 열어줘!” 떨고 있는 아기 돼지는 거절했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턱수염이 있어도 절대 안 돼!” 늑대는 으르렁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흑하고 불어서 네 집을 날려버릴 거야.” 그리고 늑대는 집을 날려버렸습니다. 하지만 늑대가 아기 돼지를 잡기 직전에 아기 돼지는 막대기로 지은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늑대는 군침을 흘리며 막대기로 지은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늑대는 다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기 돼지들은 소리쳤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턱수염이 있어도 절대 안 돼!” 늑대는 아기 돼지 세 마리가 훌륭한 먹잇감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늑대는 다시 문을 두드리며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돼지들은 거절했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턱수염이 있어도 절대 안 돼!” 그래서 늑대는 흑하고 불고 또 불었지만, 벽돌집은 날려버릴 수 없었습니다. 분노에 찬 늑대는 지붕에 올라 굴뚝으로 뛰어내렸지만, 큰 끓는 물 냄비에 떨어졌습니다. 셋째 아기 돼지는 냄비 뚜껑을 덮고 늑대를 저녁 식사로 끓였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집을 어떻게 짓는지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저처럼 돼지띠라면요!

13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14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보상, 지위, 칭찬을 추구하는 마음을 이용하여 그들의 주의를 이 생의 보상에서 심판의 날로 돌립니다. "그날"은 예수님이 그의 백성을 위해 돌아오시는 인류 역사의 끝을 의미합니다. 최후의 날에, 각 사람의 작업물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이루어졌는지, 인간의 지혜로 이루어졌는지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은 신성한 불로 시험될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대중 심리학, 경영 기술, 좋은 감정)로 집을 지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허술한 짓으로 지은 집이 불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했다면, 우리의 일은 소각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으로 이끌었고 분열을 조장했으며 이 시대의 영에 의해 형성되었다면, 우리의 사역은 그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고 불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은 시간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의해 시험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종 점검을 하실 것입니다. 불을 견디려면 우리의 일은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에 맞춰져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복음을 전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 됨을 추구하고 성령을 순종했다면, 우리의 일은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 문맥에서 보상은 "하나님의 칭찬"으로 정의됩니다 (고린도전서 4:5).

그렇다면 그의 일이 불타버린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15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기서는 마지막 탈출의 생생한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불속을 헤치고 나와 간신히 안전한 곳에 도달했지만, 불의 냄새가 남아 있는 사람의 모습과 같습니다 (예: 롯이 소돔을 탈출할 때와 같은). 형편없는 일을 한 사람은 불타기 직전에 겨우 끌려 나올 것입니다.

여기서 손실은 구원의 손실이 아니라 보상의 손실임을 주의하십시오. 불에 소각되는 것은 일이지 일꾼이 아닙니다. 훌륭한 일이 구원을 얻지 못하고, 열등한 일이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며, 최후의 심판 날에 정죄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심판하시고 그에 따라 보상하실 것입니다. 이 구절들은 우리 모두에게 엄중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집을 짓는지 신경 써야 합니다!

우리는 짚과 막대로 집을 지은 게으른 아기 돼지들처럼 될 수도 있고, 벽돌로 집을 지은 아기 돼지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제 이야기에서는 세 마리 돼지 모두 살아남았지만, 단 하나의 집만이 강하게 서서 적을 물리쳤습니다.

구원이라는 은혜로운 선물과 함께 복음의 메시지를 맡아 관리하고 하나의 확실한 기초 위에 세우는 은혜로운 책임도 따릅니다. 우리가 그 기초 위에 (예수님) 세우고 있다면, 이 전망은 우리를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기초 위에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큰 희망을 품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중 상당수는 로마 카톨릭 배경에서 왔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5절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연옥 교리를 지지하는 주요 본문입니다. 연옥은 지상에서의 삶과 천국 사이의 중간 상태로, 죄값을 치르고 천국을 위해 정화되는 곳입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연옥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은 사람을 정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의 품질을 시험합니다. 이 구절의 목적은 일꾼들을 벌하거나 정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한 일의 질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사실, 연옥 교리는 성경에 기초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연옥에서 죄값을 치르며 그리스도의 희생에 무언가를 더하지 않습니다. 연옥은 잘못된 기초 위에 세운 잘못된 가르침의 예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왜 신중하게 건축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16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것은 신약 전체에서 교회를 가볍게 여기고 파괴하려는 사람들을 향한 가장 강력한 경고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너희"는 복수형입니다. 바울은 성령이 거하시는 장소로 모인 교회 가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6장에서 바울은 개별 신자를 성령의 성전으로 언급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교회 가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울의 생각 배경에는 예루살렘의 유대 성전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서기 55년 당시 여전히 서 있던 성전). 바울이 사용한 성전(나오스)이라는 단어는 성소(지성소와 성소)를 의미하는 단어로, 성전의 넓은 구역이 아니라 거룩한 곳을 지칭합니다.

구약에서 솔로몬이 첫 번째 성전을 봉헌할 때, 그와 백성들은 스스로를 성결하게 합니다. 솔로몬이 봉헌의 기도를 드린 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태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합니다(역대하 7:1-3). 즉시 백성들은 엎드려 경배합니다.

신약에서 오순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사도행전 2:1-4). 그들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안에, 그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바울은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집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가정 교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웅장한 성전이나 고린도의 웅대한 신전들과 어떻게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좀 더 현대적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작고 지하에서 모이는 이란의 가정 교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이지, 테헤란의 웅장한 샤 모스크가 아니라는 말인가요?" 바울은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3. 건축물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성전)!

고린도에서는 성령의 임재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가정 교회들이 고린도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때문에, 그들은 인간의 지혜, 인간의 가치, 고린도의 방식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면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리라!"라고 기록합니다. "멸하다"라는 단어는 "타락시키다" 또는 "망치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초 위에 제대로 건축하지 못해 그들의 부실한 일이 소멸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실함을 넘어 파괴하려는 의도를 가지기도 합니다.

17절은 심각한 경고입니다.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부패시키거나 해체하려 할 때, 그들은 실제로 불장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경고: 이 전선을 만지면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 표지와 같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종종 사소한 질투, 교만, 다툼, 성적 부도덕, 우상 숭배, 영적 은사에 대한 분열, 그리고 결국 복음의 부정 때문에 교회 가족이 서서히 파괴됩니다. 해체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해체의 씨앗을 심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오늘날 우리는 성 정체성 이념 전도자들과 진보적 기독교 설교자들이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 교회의 신앙을 약화시키고 있을 때 암전한 사람으로 남을 여유가 없습니다. 이번 주 오타와에서 열린 상원 회의에서 한 퀘벡 출신 상원 의원이 탄식했습니다. “캐나다는 그 가치를 잃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는 기초인 예수님 위에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와 살아 있는 관계의 현실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교회의 기초입니다. 우리의 그분에 대한 사랑이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비전을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바로 그 거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누구인지를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그분만큼 소중히 여기길 바랍니다!